

# 터미널을 넘어 미래도시로…광천권역 대전환

## 광주시·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투자협약

1년 6개월 개발계획 변경 사전협상 마무리  
3조 투자…1단계 2028년 백화점 신관 준공

2단계 버스터미널·42~44층 복합시설 조성  
5성급 호텔·공연장 등 ‘마이스 거점’ 구축

광주시가 광천터미널 일원을 광주를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대전환하는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세계와 함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대시민 보고회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고,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의 개발 구상과 공공기여금 1497억원 협상 결과, 광천권역 교통 대책, 특화디자인 조감도 등을 공개했으며, 신세계와 총 3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호텔, 공연장, 업무·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광주 대표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전충을 기반으로 ‘도시 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고, 소상공인과 의 상생과 지역사회 기여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신세계가 지

난 2024년 8월 협상대상지로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이후 사전협상에 착수해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일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의 사업계획과 공공기여금 149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세계적 설계로 구현 ‘광주형 랜드마크’ 이날 함께 공개된 특화디자인은 세계적 건축·도시계획·디자인 전문기업인 네덜란드 아카디스(Arcadis)가 맡아 수행했으며, 신세계 주요 점포의 디자인 정체성을 접목했다. 신세계가 제시한 프로젝트 구상 ‘더 그레이트 광주(The Great Gwangju)’를 공간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신세계는 총사업비 3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35층 규모(높이 180m)의 버스터미널 빌딩, 42~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빌딩 4개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다. 1단계(2026~2028년)에서는 백화점 신관을 신축하고, 2단계(2028~2033년)에서는 터미널·호텔·공연장·업무시설이 들어서는 터미널빌딩과 주거·의료·양로·교육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빌딩 4개동을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올해 전체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건축 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와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백화점 신관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말 개점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백화점은 리모델링을 거쳐 최종 완료 시 영업면적이 기존 대비 3배로 확대되고, 고객 휴게·문화공간과 주차시설도 대폭 확충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백화점 신관 준공이전인 2027년부터 터미널빌딩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신세계는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착공 이행보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 편의 증진 미래형 교통·문화 허브 터미널빌딩 공사 기간 동안 현재 위치의 광천버스터미널은 일시 폐쇄되고, 임시 버스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이다. 임시 터미널의 위치와 운영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검토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버스터미널은 기존보다 면적이 1.6배 확대돼 대합실과 시민 편의시설이 대폭 강화되고, 이동 동선도 효율적으로 재편된다.

지상 1층 원근광장과 지하 1층 대합실을 연결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되며, 지하 2층에는 대합실과 승·하차장, 지하 3층에는 고속·시외버스 차량 대기용 박차장, 지하 4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 공간은 기존 백화점과 터미널을 합친 1144면에서 복합화 이후 6077면으로 늘어나 5.3배 확대된다.

또 터미널 지하 1층에는 약 500m 길이의 보행 연결공간이 조성돼 백화점과 터미널, 주거·의료·교육시설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다.

신세계는 이 공간을 전라도의 맛과 멋을 담은 먹거리·문화공간으로 특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연장·호텔·전망대·마이스거점으로 터미널빌딩 5~6층에는 650석 규모의 가변형 무대와 객석을 갖춘 호남권 시그니처 공연장이 들어선다. 서울 남산 신세계 트리니티홀을 모티브로 클래식·뮤지컬·강연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최고급 음향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23~35층에는 200여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섬, 하이엔드 컨퍼런스 시설을 갖춘 국내 5성급 기준으로 조성된다. 공연장과 백화점과의 연계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마이스(MICE)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호텔 옥상(높이 180m)에는 무등산과 광주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되고, 백화점 구관 외벽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7~22층에는 ‘포레스트 라이브러리(책거리)’와 최신식 3D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조성돼 철거된

옛 유스퀘어 영화관을 대체한다. 이와 함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와 가상현실(VR) 스포츠 관람시설 등 ‘꿀집도시 광주’를 구현할 최신 여가·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1995년 업계 최초로 현지법인으로 설립돼 30년간 광주 시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타 도시에 비해 낡았던 백화점을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투자를 계기로 광천 일대는 주거·상업·교육·의료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 콤파트시티로 변화할 것”이라며 “도시 인구 3000만명 달성과 함께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산업·경제·문화가 꽃피는 부강한 광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성능·디자인 다 잡았다…삼성전자, ‘AI 무풍 에어컨’ 출시

‘AI·모션 바람’ 탑재…사용자 위치·활동량 등 감지  
공간 분리로 집중 냉방 ‘모션 블레이드’…넓이 ‘슬림’

삼성전자가 무풍 에어컨 출시 1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을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제품은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등 2종이다.

먼저 ‘갤러리 프로’ 에어컨은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특화된 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AI·모션 바람’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시원함을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 2가지 바람과 좌우 공간으로 회전하며 넓은 공간을 고르게 순환해 냉방 하는 ‘순환’, 시원한 바람을 최대 8.5m까지 보내는 ‘원거리’, 직바람 없이 쾌적함을 선사하는 ‘무풍’, 전작 대비 19% 더 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을 제공하는 ‘맥스’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을 지칭한다.

이 6가지 바람은 좌우와 중앙 등 공간을 섬세하게 분리해 집중 냉방하는 송풍 날개인 ‘모션 블레이드’로 구현된다. 특히 ‘AI 직접’과 ‘AI 간접’ 바람은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 부재 등을 감지하는 ‘모션 레이더’ 센서를 통해 한층 고도화된 냉방 경험을 제공한다.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이중 날개 구조의 멀티 블레이드 설계로 강력한 수평 기

류를 구현해 바람을 최대 6m까지 전달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바람까지 총 7가지 기류 제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실내의 온도와 공기질, 사용자 패턴 등을 학습해 최적화된 환경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AI 쾌적’ 모드에 ‘패적제습’을 통합해 온도는 물론 습도까지 편리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에어컨을 켜고 ‘AI 쾌적’ 모드를 설정하면, 에어컨은 상황에 맞춰 알아서 냉방 모드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제습이 필요하면 ‘패적제습’으로 공간의 습도까지 꼼꼼히 관리해 한층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또 삼성전자는 에어컨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미니멀하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공간에 녹아드는 고급스러운 에어컨 외관을 완성했다.

‘갤러리 프로’는 한층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가로 넓이가 약 30% 슬림해졌고 돌출되는 부분이 최소화 돼 설치 시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일체감을 구현한다.

앞면 전체에는 메탈 소재의 무풍홀이 적용돼 고급스러운 질감을 더하는 동시에 차가운 냉기를 풍성하게 전달해 쾌적함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

옆면에는 패브릭 질감이 느껴지는 패턴이 적용돼 공간의 품격을 높인다.

이번 신제품은 에센셜 화이트, 에센셜 플럼, 사틴 그레이지, 미스티 그레이 등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삼성전자가 냉방 성능부터 디자인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AI 무풍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다.

‘프로 벽걸이’는 화이트 컬러 1종으로 출시됐으며,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수직과 수평의 그리드 구조가 반영돼 벽과 하나의 면처럼 이어진다.

사용 편의성도 대폭 확대됐다. ‘갤러리 프로’는 원터치 방식의 ‘이지오펜데일’과 ‘이지오펜도어’로 전면 메탈 패널과 내부 팬까지 손쉽게 분리해 청소할 수 있다.

또 물로 세척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리우저를 필터가 적용돼 유지 비용 부담도 적다.

‘프로 벽걸이’는 청소가 용이한 ‘이지오펜 블레이드’ 뿐만 아니라 물로 세척해 사용할 수 있는 리우저를 필터가 동일하게 적용돼 더욱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사용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됐다.

‘갤러리 프로’ 가격은 제품 사양에 따라 설치비 포함 402만원에서 730만원이다. ‘프로 벽걸이’ 가격은 설치비 포함 161만원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개발팀 신문선 상무는 “기류 혁신을 구현한 ‘AI·모션 바람’ 기능으로 사용자 중심의 냉방 경험을 업그레이드했다”며 “글로벌 에어컨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까지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모델에 한해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93만원의 제품 할인 및 삼성케어플러스, 올리브영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트럭’ 2000만km 달렸다

2020년 스위스에서 첫 시동  
독일 등 5개국 165대 운행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1000만km를 돌파했고 지난달 2000만km를 넘어섰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방 및 냉동벤,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기업 등 수소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 110여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류 등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슈퍼마켓 체인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이용 중이다. 파리, 리옹, 페이드 라루아르, 부르고뉴 지역에서 청소차, 후크리프트, 크레인 특장 부문 등에서 쓰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밖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는 식료품, 음료, 공업 섬유 물류 부문에서 수소전기트럭이 적극 사용되고 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디젤 상용 트럭이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 운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1만3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소나무 약 15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등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위스에서 첫 발을 내딛었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 각 지역 진출에 이어 북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파트너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수소 상용차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북미지역 진출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누적 주행거리 100만 마일(약 160만km)을 달성하기도 했다.

장승기 기자 sky@